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 목 적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도시재생, 식품산업, 교통문제 등 시정전반에 대해 선진지를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함.

○ 기 간 : 2018. 6.18 ~ 6.26(7박9일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독 일

- 로덴부르크 버드읍사무소(Municipal City Hall)
- 로덴부르크 시청
- 뮌헨 시청, 포츠담 상수시 궁전
- 베를린 시청, 독일 국회의사당

• 체 코

- 프라하 시청
- 세계문화유산도시 체스키 크롬로프, 플젠 맥주공장

○ 여행자 인적사항 : 17명

전몽호(단장),정병술(국장),김득재(실장),박내옥(실장),최혁주(과장),정원준(담당),임광연(담당),송창현(담당),이명섭(담당),박채열(담당),정성권(담당),박병무(책임관),원성희,강신영,박정은,지성욱,서병규

2.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첨부

※ 일정별 또는 활동 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첨부

○ 시 사 점

○ 특이사항

4. 첨부자료 : 방문기관 팸플릿 00부

2.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2018. 6. 18, 월요일>

- 우리 팀 명칭을 ‘목포의 부활’을 뜻하는 ‘목포 르네상스팀’으로 정하고 인천공항에서 17명이 18일 오전 12시에 탑승, 11시간의 지루(?)한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
-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7시간 늦기 때문에 독일 현지시간은 18일 오후 5시경, 우리 팀은 로덴부르크로 2시간 30여분 이동 후 숙소에 투숙함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 함.

<2018. 6. 19, 화요일>

- 로덴버그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멀지 않은 관청인 듯한 깃발이 보인다. 가보았더니, ‘버드시청 산하 읍사무소’란다. 백발의 어르신에게 우리 팀 사진 한 컷 부탁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신다. 그런데, 읍사무소 한 쪽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오전 8시30분부터 5시까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주민센터도 관광안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읍사무소(Municipal City Hall) 옆에는 웅장한 머리는 스프링스 모양을 하고 몸은 사람을 한 5m 높이의 동상이 있고 뒤편에는 수십개의 무덤이 있다. 동상 옆에는 1차대전 때 사망한 사람들로 보이는 이름이 적혀 있다.

우리네 장례문화는 죽은 자들을 집과 멀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드레스덴 시청사 앞



프라하 시청 시청 청취



베를린 카르론 박물관

- 버드마를을 지나 로덴부르크 시가지로 향했다. 유럽이라는 곳이 기후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옷은 반팔, 바람막이, 심지어 겨울 파카

까지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리 버스드라이버는 반팔 입었다가. 몇 시간 뒤에 파카를 입기도 했다.

- 로덴부르크시는 중세기부터 건설되어 온 도시로 성입구부터 돌다리 아래로는 수로가 있어 적의 침입을 막고 첨탑에는 대포가 여러 대 놓여 있었다. 도로는 모두 사각형 돌로 깔려 있었다. 이런 돌로 박힌 도로 건설에 백년이상 걸렸다고 한다.
- 같이 온 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 “ 우리 시 원도심에 있는 일본식 건축물을 일제의 잔재라고 없으면 안돼,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역사의 산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네!”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와 닿는다.
- 난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때 기억은 3~4학년 때 한 여름에도 올라가면 우리가 강당으로 쓰던 건물, 지금은 성 무어라 불리는 그곳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외한 이지만 내가 살던 곳이 노적봉 밑이라 그 곳을 오르거나 유달산 대학루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곳은 바둑판과 같이 도심이 설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십자형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해풍을 막기 위해 약간 항구 쪽 방향에서는 몇%정도 기울어지게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 떠오른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집집마다 1층뿐만 아니라, 도로에는 사각형돌로 만들어진 화분이 시가지에 흩어져 화분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3~4킬로를 걸어 들어가니, 넓은 광장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 보인다. 마르크트 광장과 로덴부르크 시청사란다.

- 마르크트 광장엔 유럽 곳곳에서 온 관광객,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보인다. 우선, 우리 팀 여기서 한 컷하고, 각자 골목길을 탐방한다.

난, 울 직원하고 시청사 2층으로 올라갔는데, 기분이 우리 원도심에 있는 문화원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설마, 여기서 지금도 업무를 보는 것일까 하고 3층에 다시 올라 가 노크를 해 보았더니, 인기척이 있었다.

- 짧은 영어로 ‘안내소’를 물어 보았더니 광장 한편에 있다고 한다. 다시, 내려가 ‘인포메이션’센터에 가서 물어 보았는데, 영어와 뜻밖에 한글로 된

관광 팜플렛을 얻을 수 있었다.

내친김에, '사회복지 정책 안내 책자'를 얻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책자는 없다고 했다.

- 그리고 골목길 탐방하는데, 차들이 가지런히 이른바, 개구리주차장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무인주차머신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에 들르고 싶었는데 유료라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로텐버그 시청사



로텐버그시 건물창쪽 꽃 · 화분



로텐버그시 개구리 주차장

- 점심식사 후, 버스로 3시간 가량 걸리는 독일 남부의 최대도시 '뮌헨'으로 향했다.
- 먼저 들른 곳은 뮌헨 신 시청사, 그 곳은 중앙부에 매 정시마다 움직이는 인형시계인 글로켄슈필이 있어 수 많은 관람객들이 플래시 세례를 떠뜨린다.
- 1층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찾았다. 그런데 실망이었다. 관광안내책자가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마저 유료다. 영어로 된 리후렛이나 팜플릿이라도 있었으면 가지고 왔을텐데 독어라 2개 팜플렛을 오히려 환불하고 말았다.
- 독일 최대의 남부도시, BMW본사가 있고,뮌헨하면 떠오르 것이 '세계 3대 축제인 ' 옥tober페스티벌'아닌가, 가이드 말에 따르면 10월이 되면 맥주를 관광객과 시민들이 맥주를 마시는데 도수를 높여서 판매한다고 한다.
- 암튼, 관광안내는 대도시 답지 않았다.
- 근데, 시청사 네모진 공간안에 카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서 환

담을 하고 차를 나누며 요리를 먹고 술까지 마신다. 우리 원도심 제2청사에는 그런 곳이 있을까?

- 시소유 건물을 단체에 임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 그래도 시청사 건물은 끝내준다. 뭐랄까 중세풍 로마네스크 양식 그런 모양이다. 시청사 앞 마리엔광장에서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관람객들은 동전을 던진다.
- 마리엔 광장과 이어진 중심도로로 이어진 상가는 관광객과 쇼핑객들로 가득하다. 세계 곳곳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이다. 숙소는 뮌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호텔에서 잠을 청했다. 중심가 호텔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나?



뮌헨시청사



뮌헨시청사내 카페



마리엔광장 공연

<2018. 6. 20, 수요일>

-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보려니, 버스를 많이 타고 이동하는 수 밖에 없다. 창 밖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산은 별로 없고 구릉지, 밀밭, 경사각도가 심한 지붕으로 된 집, 경사가 급한 것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서란다.
- 뮌헨에서 체코 체스키 크롬로프 이동하는데 4시간 꼬박 걸렸다. 우리 같으면 국경을 넘는데 무슨 검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는데 그런 심사 따위 하나도 없었다. 유럽공동연합국가라서 그런가?
- 체코의 체스키 크롬로프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한옥마을, 안동하회마을 정도랄까? 중세풍의 그림같은, 아니 동화에나 나

올법한 풍경들이 펼쳐진다.

- 이 도시가 형성된 것은 약 400년이나 걸쳐 완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전체를 휘도는 강과 내성, 외성을 이어주는 돌다리 그리고 도로는 그 곳에서 나오는 돌로 촘촘히 박혀 도로가 나 있다. 우리 팀 몇 명은 성당에서 엄숙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근데, 난 구경만하지 사는 것은 별로다.
- 우리 시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지? 흔히들, 우리 시는 1897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보다 앞선 조선초부터 만호진으로 불리며 수군들과 거주민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선조와 숙종 때 노론의 대가인 송시열이 유배를 갔다가 제자 1,000여명 넘게 거느리고 귀경길에 목포에 도착하여 한양으로 갔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 우리 시의 유산을 이순신장군이 정유재란 때 군량미로 위장했다는 노적봉은 어떨까? 유달산에 있는 동명왕상이나 부처상도 비록, 일제에 의해 새겨졌지만 없애지는 말자, 교육의 장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 다음 코스는 풀젠이란 곳이다. 이 곳은 체코 맥주공장이다. 흔히들 맥주하면 독일을 떠올리지만, 체코의 풀젠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곳이다.
- 체스키 크롬로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탓일까? 가이드 움직임이 바쁘다. 6시가 넘어서 가면 안된다고 기사한테 이야기 한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움직이는 법이 없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2시간 후 반드시 휴식, 하루에 9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고 한다.
- 다행히, 6시에 다달아 풀젠 맥주공장에 도착하자, 회사 안내직원이 마중한다. 거대한 청동으로된 사일로 같이 생긴 곳에서 호프와 다른 원료를 혼합하는 곳을 보여준다. 그리고 혼합한 맥주는 지하창고로 옮겨진다. 지하 창고는 너무 시원하다. 시음도 해봤다. 우리나라 맥주와 다르다는 느낌이다. 난, 맥주를 별로 마시지 않는 편이다.
-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품을 만들어야 할까? 산정농공단지와 대양산단에 김관련 가공식품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우리 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중이다. 한가지 걱정, 대양산단 분양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 우리 산단만의 특화집적 산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체스키 크롬로프(세계문화유산)



체스키 크롬로프(세계문화유산)



프라하 야경

<2018. 6. 21, 목요일>

- 오늘은 체코의 온천도시인 까를로비바리다.

까를로비바리 중심에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분수가 우리를 반긴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분수와 정원을 배경으로 한 컷하고, 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자 노점에서 조그만 주전자형 도자기 컵을 팔고 있다. 그 곳에서 관람객들이 컵을 사서 조금만 올라가면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걸 마신다.

- 그런데, 좌측 20여층 높이의 호텔 간판에는 ‘까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아, 유럽의 3대영화제의 하나로 7월에 열린다고 해서 좀 아쉽긴 했다.

- 여기서, 우리 시는 영화에 관한 많은 소재와 주제가 너무 많아, 예를 들기도 힘들다.

대중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방편으로 이 만한 꺼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상영되었던 강동원 주연인가(?)하는 ‘1987’년은 유달동 ‘연희네 수퍼’에서 촬영되었고,

내가 겪은 바로는 2002년 월드컵으로 뜨거울 당시, 손예진 주연의 ‘클래식’은 아직도 한국영화 100대선에 들 정도인데, 이 영화 역시 유달동, 북교동에서 촬영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영화들은 우리 시를 폭력성 등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우리 시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자라면서 또한 몸소 겪은 바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화들은 배제하고 대표축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가칭‘목포영화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런데,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외국여행할 때 짧은 영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자유롭고 비행요금만 있으면 자동차를 렌트하면 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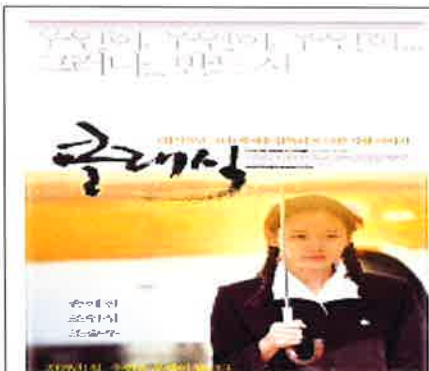
까를로비바리시 정원



까를로비바리 시내가



까를로비바리 영화제 장소



영화“클래식”포스터



영화“1987”포스터



1987영화촬영지 “연희네 수퍼”

- 난 팀장이라 우리 팀 제일 뒤편에서 쳐지는 멤버가 있는가 하고 챙겨보려고 뒤편에 서서 갔다. 근데, 내가 행불이 된 것이다. 다름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 좀 보고 나왔는데, 팀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팀원한테 연락했는데 점심식당이 ‘찰리’라고 해서 물어 물어 갔더니 중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
- 처음엔 ‘찰리’를 물어보니까 4명이 모두 동쪽 방향이라 해서 갔는데 아니다. 아차, 하다 싶어 경찰에게 영어 좀 하냐고 물어보니, 조금한다고 한다. 경찰이 아는 ‘찰리’는 2곳이 있는데 중심지에 있는 식당은 ‘찰리 채플린’이라는 곳 이란다. 친절한 경찰의 도움으로 ‘찰리채플린’에 팀원들보다

먼저, 도착 차분히(?) 식사를 마쳤다.

- 오후에는 카를로비바리에서 체코 수도인 프라하로 이동, 2시간이 걸렸다. 프라하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밤을 묵었다.

<2018. 6. 21, 목요일>

- 낯선 곳에서는 잠이 들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 아침, 부지런한 팀원들은 시청광장에서 운동도 한다. 식사를 하고 체크아웃을 마치고 프라하 시청으로 이동, 프라하 시청 직원들이 한참 출근 중이었다. 근데, 하나같이 열쇠를 손에 쥐고 출근한다. 안내원인 듯한 사람이 가이드에게 영어로 이야기 한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시청에 대해 들었는데 본인은 회계부서에서 일한다고 했다.
- 아쉬운 점은, 출근시간 중이라 1시간밖에 프라하 시청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안내센터'도 문을 열기 전이었다. 다행히 한국어로 된 '주머니속의 프라하'란 78쪽으로 된 책자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 관광객과 유학생들을 위해 제작했다는데 우리 시도 1권으로 된 책자를 만들었으면 한다.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 유럽의 시청사들은 성당풍의 건물들이 많은 것일까? 하여튼, 프라하 시청사도 건물만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 체코하면 떠오르는 작곡가는 '신세계교향곡'으로 유명한 '드보르작', 체코의 국민작곡가인 '스메타나'를 들 수 있는데. 공원묘지에 묻여 있단다.
- 첫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은 산자와 죽은자들이 함께 있는 것 같다. 클래식을 조금은 좋아하는 편이라서 황급히 예를 갖추고 자리를 떴다.
- 여기서, 우리 시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클래식은 아니지만, 대중가수를 많이 배출한 도시가 아닌가?
- 일제강점기에는 이난영여사가 목포를 대표해서 전국가요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 것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가수가 되었고 그 딸들 또한 미국에서 '김시스터즈'로 활동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한다. 남진하면 말하면 잔소리, 1965년부터인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오빠로 남아 있다. 조미미, '여고시절'을 부른 이수미, 지금 활동 중인 가수들도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래서, 대중가요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원도심 집 한 칸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전시하고 노래를 틀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물

론, 저작권 문제를 풀어되겠지만 말이다.

- 프라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야경이다.

우리 팀은 저녁먹고 뭘, 먹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편안한 차림으로 나가자고 하니, 어떤 팀원은 슬리퍼 신고 나오고 ^-^

2km 걸었더니 프라하의 상징인 까를교에 갔는데, 구름 관광객이 모여 있다. 아래는 볼타바강이 흐르고 석양이 진다. 근데, 까를교 중간쯤 갔는데,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다.

- 동상은 체코전국의 아버지 쯤되는 동상인데 아래 양쪽을 손을 펼쳐 붙이고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고 해서 다른 팀원보다 재빠르게 '울 막내 고3인데 in 서울'하게 해 주소서 하고 두 번이나 빌었는데 아빠 맘을 알아나 줄려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소원이 비는 동상이 있다. 이젠 다른 팀원에게 양보해야 지,

- 아!, 우리 평화광장에다 이런 소원동상이나 상징물을 만들면 흥미롭지 않을까?

다리를 건너니, 인산인해 하마터면 팀원 분실우려^-^

볼타바강가에서 연신해서 플레쉬가 터진다. 석양이 너무 아름답다. 체코는 오후 9시가 넘어야 어둠이 드리워진다.

- 우리 시는 어디가 제일 석양이 멋있을까? 지난 시절, 정시장님 때였나? 대반동에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를 하나 세웠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을까?

- 아무튼, 연말연시 때 관광객을 많이 끌자면 그런 명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대반동이 딱인데 말야 볼타바강가에는 민간인들이 배를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고 있다.

- 돌아올 때는 체코의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타고 돌아왔다. 트램은 우리로 치면 버스인데 전철과 같은 형태이다. 우리가, 돌아올 때쯤은 10시경이었는데, 1인당 2.6유로를 내고 탔다.



체코 프라하 시청



프라하 블타바강



프라하시청 방문 시정청취

<2018. 6. 22, 금요일>

오늘부터 다시 독일로 넘어와 연수를 실시한다. 체코에서 2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 츠빙거궁전은 내부 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인데,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궁전은 요한왕이 독일을 통일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츠빙거 궁전은 크게 11개 방으로 나뉘는데 영어번역기를 귀에 대고 1호실을 1번을, 2호실은 2번 버튼을 누르면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온다.

우리, 자연사박물관 등도 번역기를 들여야 와야 하지 않을까?

11개 방은 침실, 설교대, 예수 상 등이 있었다.

이어서,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유적지를 탐방하는데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내게는 흥미를 끌지 못했고, 관람객들과 회화를 하는데 중심을 두었고 마지막은 산으로 둘러싸인 성을 올라가는데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었다.



상수시 궁전



상수시 궁전



트램

<2018. 6. 23, 토요일>

- 아침에, 우리에게 '포츠담선언'으로 잘 알려진 포츠담 시로 향했다.
그 곳은 정원과 숲으로 둘러싸인 상수시 궁전과 정원이 있는데, 너무 넓어 정원과 호수만을 보았는데, 정원은 계단식으로 크기가 축구장 2배 면적이 나 된 아름다운 정원이었는데, 우리 시도 유달산 후면부 등지에 그런 정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욕심일까? 케이블카가 준공되면, 생물자원관과 함께 하나쯤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 점심을 먹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향했다. 인구는 60만명.
먼저, 도착한 곳은 페르가몬 박물관 그 곳에서 놀라운 벽화를 보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중동 유적도 있었는데, 현재도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세계 각지에 있는 유적이거나 유물, 서적 등을 모아 1910년대 경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남의 나라 유적을 전시하는 자체가 제국주의적 색채가 난다.
- 다음은,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우리 에겐 새로운 감정으로 다가온다. 부란덴부르크 벽 앞에서 지냈을 우리에게 사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느낌이 들게한다. 부서진 자리엔 1961년부터 1963년까지란 숫자가 철로에 새겨져 있다. 다시는 분단의 아픔을 겪지 말자는 의미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 이어서 메르켈 총리집무실이 있는 건물과 국회의사당, 그런데 국회의사당 옆 광장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아, 오늘이 월드컵 F조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대결하고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대결하는 날이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팀은 한 컷하고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회기 중도 아니고 토요일이어서 외래 방문객들은 들어갈 수가 없단다.
- 독일하면, 대륙법계의 원조국가가 아닌가?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뒤돌아 섰다. 광장 한켠, 많은 사람들이 호텔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호텔은 외국원수급과 우리나라 최고부자가족이 묵었던 호텔이다. 물어보니 무슨 일이냐고 하니, 영국의 팝그룹 '롤링스톤즈'가 독일을 방문해 그 호텔에 숙박했는데, 나오는 모습을 본다고 모였단다. 좀, 그렇다.

- 국회의사당과 호텔 옆에는 그 유명한 아우크슈비츠 감옥에서 희생된 자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베를린에서 가장 비싼 자리라고 한다.
- 무덤은 사각형 석조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 무덤과 어린이들 무덤들이 3,000여기가 있었는데, 바닥이 굴곡지고 해서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독일이다. 물론, 극우 독일인들은 외곽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 독일 독재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 상인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유태인 800백만 명을 살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 반면, 일본은 어찌하고 있는가? 그들은 반성과 사죄를 하질 않고 있다. 사죄를 하게 되면 배상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 근데, 우리나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뺏아졌던 것 아닌가? 흔히들 대원군의 쇄국정책 때문에 개화가 늦어져서 그런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모가 왜인들에게 살해 당하고 국왕은 자주 국방력 등을 세우지 않고 외세에 의존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가?
- 우리 목포도 러시아에 의해 영사관이 세워졌고 목포 앞바다를 조차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897년 강제로 개항이 된 것이고 그 흔적들은 아직도 우리 시에 남아 있지 않은가? 절대로 잊지 말자, 그리고 보존하자!
- 여기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역사루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원도심에는 알려지지 않는 일제강점기 흔적들을 찾아내자!.



독일 국회의사당



베를린 장벽



61~63년 건설된장벽(하단부)



아우크슈비츠 무덤



페르가몬 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 내부

<2018. 6. 24, 일요일>

- 연수 일곱째 날

아침식사 후, 베를린에서 아이제나흐로 이동했다. 3시간 30분이나 소요된다. 루터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우퍼 하우스. 종교개혁 후 루터가 숨어 있었던 바르트부르크 성 내부를 관람하였다. 돌이켜보면 개혁이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종종 때 조광조도 그랬고 루터 역시,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쉽지는 않다.

- 여기서, 우리 시는 교통질서, 친절캠페인 등 ‘시민정신함양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연수하면서 느끼는 점은 독일이나 체코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차든, 고속도로 주행시 1차선은 거의 비워져 있고 필요할 때만 1차선으로 진입한다. 물론,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긴 마찬가지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다시, 기착지였던 프랑크푸르트로 되돌아 왔다. 인구는 150만이고 베를린에는 공항이 작아 비행기가 몇 대 없다고 한다.

- 프랑크푸르트 시청사와 그 앞 뢰머광장을 찾았다. 거기서 우리 팀 한 것하고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았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은 다른 곳 안내소와는 다르게 자료가 더 많았다. 관광 팸플릿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책자까지 담당자가 찾아준다. 여기서, 우리 시도 장애인들을 위한 16쪽 정도의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책자제작이 필요치 않나 본다. 선거법도 물론 검토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문



프랑크푸르트 시가지



프랑크푸르트 시청앞 단체사진

<2018. 6. 25, 월요일>

- 실제, 연수 마지막 날
-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를 타고 라인강변으로 40여분 달렸다. 독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고 또한 ‘로렐라이 언덕’이 유명하지 않은가?
- 로렐라이 언덕을 보기 위해 우리 팀은 선착장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오는 유람선에 승선했다. 유람선에서 뜻밖에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다고 한다. 제자들을 데리고 독일로 연수 중이라 한다.
- 유람선 강바람을 쐬며 로렐라이 언덕 부근을 지나는데 로렐라이 언덕부근의 유자형으로 되어 있어 토사가 많이 쌓여 배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로렐라이 언덕 전설이 전해진다고 한다.
-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할까? 물론 용역을 거쳐야 하겠지만, 서남권 7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및 유람선 체계를 구축하여 운행하면 아름다운 다도해를 관람하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라인강



라인강 유람선 선착장



로렐라이 언덕

<2018. 6. 25일 및 26, 월~화요일>

- 프랑크푸르트 현지 시각 18:30분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탑승
예약은 미리 하였고 티켓팅은 공항로비에서 항공티켓머신에 여권사진 부분을 대면 좌석과 티켓이 나온다.
- 여객기가 3층이나 된다. 우린 뽀뽀이 흠어져 있다. 여행사에서 신경 안썼나? 이코노미석 중에서도 통로도 아니고 가운데 자리 좀 불편했다.
- 그래도 비행시간은 편서풍 때문에 갈 때보다 단축된다. 중학교 때 읽었던 스티븐슨의 작 '80일간 세계일주'에서 주인공이 실제로는 81일간 했다는 게 생각난다.
- 10시간 30분 비행 끝에 인천공항 도착.
이제는 연수 마지막이다. 목포로 내려왔다. 끝.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우리 목포시는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면적이 좁아 다른 시보다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온다.

연간 순천은 2,719억이 교부되고 우리 시는 1,825억이다. 신안은 2,702억, 무안은 2,099억, 완도는 2,047억이다. 물론, 2018년 기준이다.

-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우리시의 먹거리는 우선 대양산단의 조속한 분양, 케이블카 등 관광시설 확대, 원도심 도시재생, 서남권 시·군 협력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하겠다.
- 우리 시 직원은 위에서 언급된 과제에 전 직원이 매진해서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
- 그러나,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다. 물론 홍콩같은 도시는 예외지만,
여기서 우리 시 공직자는 하드웨어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
-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은 조그만 명소지만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다.
- ‘우리 시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자!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시의 고유한 스토리 역사 등을 창조하자.
- 그래야만 우리 시는 생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될 것이다
- 끝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직원들은 각자 맡은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속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단,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특이사항

- 유럽인들은 평소 생활이 검소하고 삶을 즐긴다. 한 해 보통 휴가가 1개월은 간다고 한다. 우리 삶도 일과 가족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겠다.
- 그들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

들고,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울 팀원이 몸소 겪었다.

우리 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통신호등 건너는 시간은 7초밖에 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편이다.

- 마지막날, '슈바인학세'라는 독일 전통요리를 시식할 기회가 있었다. 훈제 돼지 무릎요리인데 감자튀김이 곁들어 진다.

우리 목포는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대양산단에 그런 식품산업 공장 하나 유치하고 목포 맛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개발해야 한다.

- 화장실 이용은 1유로 또는 50센트를 내고 이용한다. 그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점이다.

- 여행할 때 단체보다 3~4명이 팀을 이뤄 떠나는 것도 편찮을 것 같다.

비행기표만 사고, 렌트도 쉽고 숙박도 쉽다. 돈을 아끼는 방법인 것 같다.

물론, 그 중에 중학교 3학년 정도 영어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첨부자료



로텐부르크 시 안내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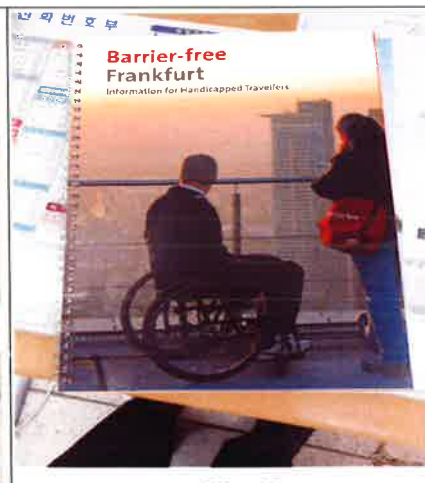
로텐부르크 안내책자(한글)



뮌헨시정 안내책자(독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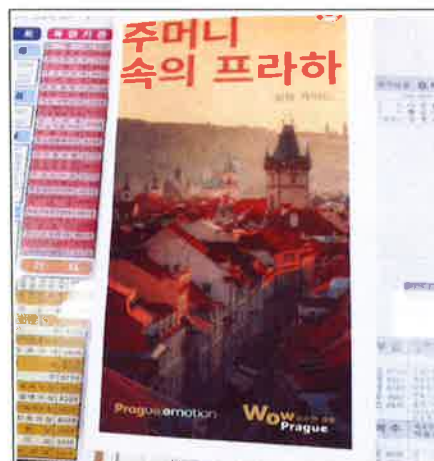
유럽여행 안내책자(한글)



장애연용
안내책자(프랑크푸르트)



장애연용
안내책자(프랑크푸르트)



프라하 시정 종합안내책자(한글)



프라하 시정 종합안내책자(한글)



상수시 궁전안내책자